

손동현
왕의 초상, 2009

손동현은 대중문화의 소재를 영정의 기법으로 표현한다. 한국화가 다뤄온 소재나 주제가 현대에 들어와 대중문화와 만나서 변용되거나 확장되는 것을 고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마이클잭슨의 소년 시절부터 '팝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후 2003년 마지막 싱글을 발표하던 시기까지의 모습을 조선시대 임금의 영정 그림 형식으로 그렸다. "김홍도가 현대에 온다면 무엇을 그렸을까" 라고 고민했던 작가는 전통이라는 거대한 물결 아래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발행처 국립현대미술관
발행일 2015. 10
기획/개발 교육문화과 김보현
디자인 홍단

2015. 09. 08 ~ 2016. 01. 24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한국화 소장품 특별전
청소년 전시 감상 가이드

무엇이 "한국화"인가?



이종상
광개토대왕, 1997

이종상 작가의 〈광개토대왕〉은 인물화 중 영정류에 포함되는 표준영정 작품이다. 표준영정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우리 역사상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 받는 선현들의 영정을 말한다. 이러한 영정 작품은 추화(推畵)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뵌 적 없는 위인들의 모습을 '추측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추화의 경우 위인의 배경과 여러 일화, 고서 등 다양한 고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Question 1

무엇이 "한국화"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화"는 어떤 모습인지 자유롭게 표현해보자.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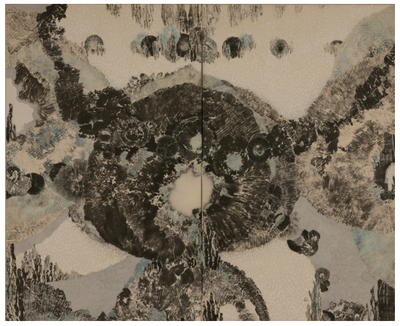
Question 2

"잠시 멈추고, 다시 보다" 〈멈추고, 보다〉 전시의 타이틀을 통해 한국화에 대한 ❚❚, ❟, ▶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봅시다.



박래현
영광, 1967

한국전쟁이 끝나고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당시의 미술계는 일제 잔재 청산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함께 구상화와 추상화의 논쟁이 불기 시작했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위시로 추상 표현주의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화 화단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박래현의 〈영광〉 작품은 이러한 영향 아래 수묵 추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수묵 화폭에 새로운 조형실험(造形實驗)을 전개하고 있는데, 멍석이나 엽전 이미지를 응용하면서도 대상을 극복한 순수추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심경자
가르마, 1983

심경자 작가는 할머니, 어머니들의 쪽진 머리 속 가르마라는 것을 켜켜이 내려오는 여인들의 역사, 삶의 질곡이라고 인식했다.
가르마를 느낄 수 있는 화폭 속 표현들은 나무의 밑동, 고가(古家)의 나무기둥, 마멸된 돌판, 깨어진 기왓장 등의 표면을 문질러 따낸 탁본들을 이리저리 엮어 패턴으로 구성한 것이다. 현대 한국화에 있어 방법의 진폭을 넓혀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와 실험적인 기법



황창배
무제, 1987

황창배 작가는 특정 재료에 구속되지 않고 아크릴, 캔버스, 오브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세계를 구사한다. 그의 작품을 통해 붓 자국이나 안료들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한국화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밑가루로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황창배 작가의 유명한 어록을 통해 그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무제〉는 작가가 표현주의적이면서 색면을 강조한 시기인 1987년에 그린 것으로서 강한 듯 하면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운취를 주는 먹과 채색의 멋진 놀림을 보여준다.



강남미
940509, 1994

〈940509〉는 15개의 화면을 잇대어 구성한 것으로 M.D.F. 나무판 위에 채색한 것이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기하학적으로 추상화한 물고기의 형상이 나타나며 나무판을 칼로 파서 독특한 재료감을 느끼게 하였다. 한지 대신 MDF를, 먹 대신 채색안료를, 붓 대신 조각도를 사용하고 마름질로 표면에 기름을 입히는 등 다양한 매체로 새로운 한국화 분야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노랑, 파랑, 빨강의 선명한 원색의 화면을 통해 90년대 한국 추상화의 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최현석
장례호상도, 2014

조선 정조의 화성 행차 그림을 연상시키는 평면적인 기록화 구도 안에 장례식과 결혼식 등 현대 한국의 풍습을 세세히 담은 한국화 작품이다. 한국화를 "지필묵이라는 전통적인 소재"로 정의하거나 "한국인의 고유한 미감을 표현하거나 한국인의 동시대 일상을 담아야 한다" 등의한국화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중 하나를 최현석의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화가 담고 있는 "한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박생광
무속,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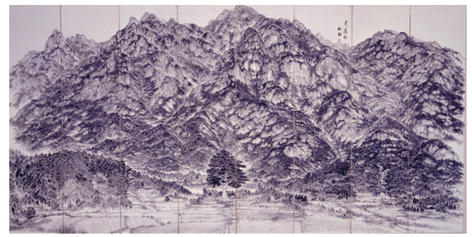
박생광 작가는 한국인의 토속신앙,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한국 미학의 원류로 이해하고 역동적인 색상으로 한국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전통을 떠난 민족예술은 없다. 모든 민족예술은 그 민족 전통 위에 있다"는 작가의 생각이 담긴 〈무속〉 작품을 통해 한국미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무속신앙을 가까이 두어 삶의 위안을 받았던 우리네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다.

한국화는 산수화?



양동언
대둔산도, 1996

수묵산수화를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는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풍으로 변용시키는 양동언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 눈에 익숙한 구도를 가지는데 그 이유가 원근법의 구도로 산수가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산수화에서 보이는 준법(皴法)이 아니라, 원근법과 명암처리로 산과 돌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김천일
월비마을, 1992-1993

전통적인 산수화에서는 1시점으로 고정하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산수를 화폭에 담아내기까지 시점이 이동하는 다시점(多視點), 부감시(瞰視視:높은 곳에서 넓은 곳을 내려다 보는 시점)를 사용 한다. 김천일 작가의 〈월비마을〉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시점과 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법고창신 法古創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고(法古)는 옛 대가의 작품을 배워 그리는 과정(인포메이션, 방작(倣作))을 통해 기법의 숙련뿐 아니라 그들의 높은 정신성을 공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옛 전통을 깊이 탐구하면서도 "모사론"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로운 변화(變)을 첨가하여 자신만의 양식으로 "창신(創新)"해야 한다. 옛 것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계승을 바탕으로 작가의 개성을 표출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 말로 오늘날 한국화가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발행처 국립현대미술관
발행일 2015. 10
기획/개발 교육문화과 김보현
디자인 홍단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15. 09. 08 ~ 2016. 01. 24

동양화? 한국화?

1922년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회화를 서양화와 동양화로 나누기 위하여 처음 동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의 동양화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화가들과 신민지 조선 화가들이 제작한 전통 회화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광복 이후 좁은 동양화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미술계 인사들이 비판하면서 한국화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한국화부문이 신설되고 1983년 미술교과서에 표기되면서 동양화, 한국화라는 용어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